

제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 개최

60여 개국 4300명(국외 3600명, 국내 700명) 참가



강 화 순
IPVS2012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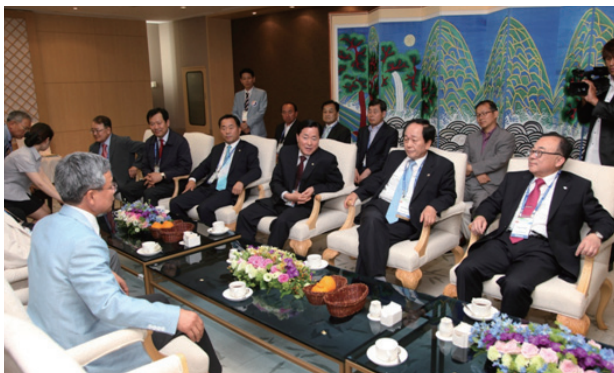
2012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ICC에서 제 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가 역대 최상, 최고,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

참가자들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은 제22차 제주 세계양돈수의사대회 개최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양돈수의사대회는 전 세계 양돈 분야 수의사, 양돈생산자,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양돈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양돈산업 선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세계대회다.

한국양돈인들은 이번 IPVS 2012를 계기로, 한국 양돈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김부일 제주도 부지사,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 등 많은贵宾들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과의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 지원 추진을 위해 IPVS 운영 지원 T/F팀을 구성, 관광부서와 합동으로 행사 참가자들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국내 7개 항공사에 대한 증편 요청 등의 운영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다.

1. 대회 행사명 및 행사 내용

1) 대회 행사명

이번 대회 행사 명은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제 22차 제주대회(IPVS2012 JEJU)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양돈수의사대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양돈 관련 수의사 및 관련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양돈 관련 학술대회로 지난 2008년 6월 남아공 더반 대회에서 한국이 2012년 6월 제주개최권을 따내어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다.

2) 행사 주제 및 참가자

이번 대회의 주제는 “행복한 돼지 건강한 사람(Happy Pigs, Healthy People)”로 국내외 양돈학자, 양돈수의사, 다국적 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60여개국 4300명(국외 3600명, 국내 7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3) 행사 내용

이번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에 다국적 기업(화이자, 메리알, MSD, 베링거 잉겔하임, 바이엘, 히프라, 엘랑코, PIC, 해리스백신 등) 및 국내 기업 (코미팜, 중앙백신연구소, 녹십자 의약품, 대성미생물, 씨티씨바이오, 바이오노트, 선진 등) 관

련 기관(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특별자치도)·단체(대한수의사회, 제주도수의사회,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84개 홍보·전시 부스를 설치 운영으로 총회 참석자에 대한 열띤 홍보가 이뤄졌다.

또 1,370편의 발제 및 포스터 논문(발제 발표 270편, 포스터 논문 1100편)이 발표됐으며, 8개 분야 학술강좌가 개최돼 FMD, 인수공통전염병(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돼지 소모성질병(PRRS 등) 등 양돈 산업의 주요 이슈가 되는 질병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양돈관계자 등이 내도함에 따라 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주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세계양돈수의사대회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총회 참석자들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였다.

2. 제주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성공 개최의 의의

이번 제주 세계 양돈수의사대회는 역대 최대의 참석자와 논문 수 및 참가자들이 행사 진행 내용 및 회의장, 호텔, 음식 등 모든 점에서 최고였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제주도도 2012 세계양돈수의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선진 양돈지식 습득과 정보 교류로 제주 양돈산업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주 세계양돈수의사대회는 한국과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며, 국내 양돈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선진 양돈 기술을 습득 국내 양돈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6월 10일 생산자를 위한 사전 학술 행사 및 환영만찬

1) 양돈 생산자 프로그램

6월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세계양돈수의사대회의 사전행사로 생산자들을 위한 사전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님을 비롯한 양돈인 200여명이 사전 행사에 참석하였다.



대한한돈협회 이병모회장과 집행진

생산자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중국의 양돈 주요질병에 대해 양한춘박사, 미국의 주요양돈 질병에 대해 아이오와 대학의 윤경진교수, 유럽의 양돈 질병과 건강에 대해 덴마크의 피터 닐센 박사의 강의를 있었으며, 아시아 FMD상황에 대해 검역검사본부 주이석 부장, 다시 부각되고 있는 돼지 적리에 대해 미국의 행크해리스박사,호흡기 질병 제거에 대해 미국의 조 코너박사의 강의를 있었으며, 한국양돈연구회가 자조금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양돈장 그룹관리 실태조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룹관리 매뉴얼 개발과 적용사례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회도 개최되었다.

2) 환영 만찬

2012년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이어드 플라자에서 대회 참석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환영 만찬이 저녁 10시까지 이어졌다.

이원형 조직위원장의 환영인사와 서규용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환영사, 대한한돈협회 이병모회장의 건배사에 이어 한국 퓨전국악팀과 걸 그룹의 축하공연과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참석자들이 밤 늦게까지 한국문화와 음식을 함께 즐겼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축사

4. 6월 11일 개회식



이원형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

이원형 IPVS 조직위원장은 개막식에서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책임 있는 질병 감시로 돼지고기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도는 FMD와 돼지 열병, AI 등이 청정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IPVS2012를 통한 악성 가축 질병이 청정화 되기를 희망하며, 세계7대 자연경관인 제주도와 제주도 문화, 자연, 음식 등을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환영사를 하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박용호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수의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가 돼지의 질병 감시와 예방,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호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의 축사

이어 케임브리지대학 수의대의 댄 터커(Dan Tucker) 박사가 양돈수의학의 석학 탐 알렉산더에 대한 추모 강연을 했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줄리오 핀토(julio pinto) 박사가 ‘돼지 질병의 발병 요소’를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5. 제주도수의사회 주관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제주 흑돼지 및 제주 차 홍보

개막식 후 10시부터 제주도수의사회 (회장:안민찬) 주관으로 제주 세계양돈수의사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특별 대형 붓글씨 작성 퍼포먼스가 1시간 이상 개최되어 참가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제주출신 한국 서예계의 중진인 창봉 박동규 선생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양돈수의사대회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창봉 박동규 선생은 제 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와 로고를 대형 붓글씨로 작성하여 행사장 벽면에 전시하였다. 이 작품은 행사가 끝난 후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신축 건물에 영구 전시 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의 전통차를 외국인 및 국내 참가자들에게 시음하도록 하여 한국의 전통차 문화를 소개 하였다.



행사장 야외 이어도 플라자에서 돼지흑돼지 바비큐와 맥주 시음대를 설치하여 제주 흑돼지 시식회를 실시하여 제주 흑돼지를 전세계에 알렸다. 참가자들로부터 제주 흑돼지의 맛이 좋음에 대해 많은 찬사를 받았다.

6. 학술대회

이번 대회에는 양돈수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물을 발표하고 8개의 주제별로 최근 이슈를 토론, 양돈 신기술과 정보를 교류했다.

학술대회장은 양돈 최신정보와 질병 첨단기술을 배우려는 양돈인들로 북적북적했다.

특히 한국수의사들은 그간 같고 닳은 수의역량을 전세계에 펼쳐 보였다. 세계 양돈인들은 FMD를 이겨낸 한국양돈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7. 후원 업체 전시 부스

전시부스는 신제품과 첨단기술이 가득 넘쳐났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그 동안 물밑에서 갈고 닳은 첨단기술력을 한꺼번에 선보였다. 향후 수년 이상 세계 동물약품 시장을 이끌어갈 기술들이다. 국내 업체들도 세계 무대에 강렬한 이미지를 심었다.

동물약품 업체들이 선봉으로 내세우는 제품은 단연 써코바이러스 백신이었다.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데다, 다양한 기술경쟁 구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의 경우, 그간 국내시장에서 거둔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산 써코백신이 다국적기업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다국적기업들은 각 나라의 사용사례와 실험을 통해 얻은 각종 통계자료를 학술대회와 세미나에서 한껏 발산할 예정이

다. 더욱이, 모돈과 자돈접종 경계를 아우르는 써코백신 케이 스텝포트를 쏟아냈다.

‘IPVS 2012’는 써코백신 외에 PRRS, PED, 호흡기, 성장 촉진 등 각종 질병을 예방·컨트롤하는 동물약품 기술경연장이었다.



(1) 메인 후원업체



- 1) 세계로 뻗어나가는 ‘토종백신 자존심’ - 중앙백신연구소(대표:윤인중)
- 2) 세계 동물약품 분야의 선구자 - 메리알(대표:김종영)
- 3) 탄탄한 기술력 무장...“세계무대 벽은 없다” - 코미팜(대표:문성철)
- 4) 혁신 제품·감동 서비스로 ‘현장 깊숙히’ - MSD동물약품(대표:서승원)(인터베트-쉐링푸라우의 새로운 회사명)
- 5) No.1 양돈 파트너로서 최고의 가치 전달 -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대표:폴커 북(Dr. Volker Bok))
- 6)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Science for better life), 양돈산업의 지속 성장 발전 공헌 - 바이엘 (동물의약사업부:장궁순)
- 7) 새로운 개념의 백신 Fostera PRRS, PCV - 화이자동물약품(대표:루이스하비엘로하스)

- 8) PRRS 안정화를 위한 베스트 솔루션 - PRRS 생독백신 '아머백 PRRS' - 히프라(대표:윤석진)

(2) Industry Supporters

서포터스로는 녹십자수의약품, 엘랑코, PIC, 해리스백신 등 4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 1) 40여년 기술집약... 이젠 '세계 주역'으로 - '녹십자수의약품'(대표:김승목)
- 2) Full Value Pigs™, Heifer International Partner, - 엘랑코동물약품 (대표:심일)
- 3) 미래 50년도 PIC의 양돈 산업을 위한 육종 개량은 멈추지 않는다!-PIC(대표:이봉재)
- 4) 양돈백신 전문회사-해리스백신 (대표:해리스)

(3) 기타 후원 전시 업체

- 1) 기술 차별화... 해외시장 거침없는 향진 - 씨티씨바이오 (대표:김성린, 조호연)
- 2) '성공축산을 향한 신뢰의 선택' - 대성미생물연구소 (대표: 조항원)
- 3) PED/TGE 래피드 키트, PRRS/CSFV 항체 엘리자 키트 - (유)바이오노트(대표:오진식)

(4) 관련 기관 및 단체 홍보

-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홍보관.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IPVS 2012에서 농축산물 검역, 가축 질병 방역, 외래식물 병해충 방제 및 수산동물 수입위험 분석, 축산식품 위생관리, 수산식품 원산지 표시, 동물약품 검정·검사, 동물보호·복지, 수의과학·식물검역 기술개발 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국경검역과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해, 흑시라도 올 수 있는 악성가축질병에 적극적으로 대비 했다.

전시부스에서는 IPVS 2012에 참석하는 세계 양돈인을 겨냥해, 검역검사본부의 앞선 동물약품 기술력을 소개 했다.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돼지열병 항원항체 진단키트, 돼지오제스키병 항체 진단키트 등을 소개했는데 이들 제품이 국내 축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출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제주도 홍보

제주도 수의사회와 제주도는 제주 축산·양돈 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제주산 돼지고기 제품을 전세계에 홍보하였다.

제주산 돼지고기 햄제품과 돼지고기 육포에 대한 시식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함께 홍보 하였다.

- 3)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계속 상영하고 한돈협회에 대한 리플릿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어 한돈의 우수성과 한돈협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부스에는 이병모회장님과 김건호 부회장님 등 협회 집행진이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4) 제주 및 한국 홍보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과 제주 홍보관을 설치하여 한복 입고 사진 찍기와 한국 엽서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경험하도록 하여 전세계인에게 한국과 제주를 홍보하였다.



8. 총회 행사

총회에서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정관 개정 및 2016년 대회 개최지 결정 투표 및 차기 멕시코대회 개최지에 대한 소개로 공식 대회가 종료되었다.

1) 2014년 개최지: 멕시코 칸쿤, 2014년 6월 8-11일

차기 대회인 제23 대회는 멕시코 칸쿤, Moon palace Golf & spa resort 에서 6월 8-11일 개최 될 예정이다. www.ipvs2014.org



멕시코 개최 계획 소개

2) 2016년 개최지 선정

2016년 개최지 선정에 대한 투표가 2012년 6월 13일 총회에서 진행되었다.

중국, 브라질, 아일랜드가 3파전을 보였으나, 8년간 유럽에서 개최되지 않아 2016년도 유럽에서 개최되지 않으면 10년간이나 유럽에서 개최가 되지 않음을 강조한 아일랜드의 홍보 노력에 참가자들이 대거 아일랜드를 지원하여 1차 투표에서 아일랜드가 53%를 획득하여 2016년도 세계양돈수의사대회 개최지로 아일랜드가 선정됐다.



아일랜드 유치단의 호소

2016년 개최지 투표 결과

국가 명	득표수	비율
중국	189	29%
브라질	112	17%
아일랜드	345	53%

9. 6월 13일 환송행사

6월 13일 오후 6시 제주ICC 탐라홀에서 환송행사가 개최되었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는 환송행사에는 제주도 김부일 부지사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안민찬 제주도수의사회장, 허주형 인천시수의사회장 등 귀빈과 대회 참가자들이 참석하였다.

김부일 부지사는 세계 양돈수의사대회가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축하를 하고, 남은 기간 제주에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여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기원했다.



축사를 하는 김부일 제주도 부지사

김옥경회장은 환영사에서 세계양돈수의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와 관계자 및 대회 참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난해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 개최에 이어 세계양돈수의사대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세계수의사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강조하고 이러한 국제 대회 개최를 통해 수의학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대한수의사회 김옥경회장의 환송사

환송행사에서 제주흑돼지로 만든 스테이크를 선보여 전세계인들에게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한국 전통 무용과 검역검사본부의 중창단의 공연, 남사당 풍물놀이패의 공연으로 한국문화를 우수성을 전세계인들에게 보여 주어 참가자들을 매료시켰다.



제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성공개최의 주역들

제주 세계양돈대회의 성공개최로 한국 양돈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IPVS2012 JEJU 대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양돈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수의사회, 제주도양돈수의사회, 후원업체 관계자 및 참가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